

# 깜짝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증권사... SG發 불확실성에 긴장

(1분기)

미래에셋·삼성 등 대형 증권사 매출·순이익 두 자릿수 성장률 SG發 CFD 미수채권 발생 우려 1분기비 2분기 실적부진 예상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예상치 못했던 증시 상승으로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으나 SG 증권발 폭락사태 여파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업계의 실적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증권사들은 매출과 당기 순이익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올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한 2817억원이었지만 시장 전망치(2254억원)보다 25%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30.6% 증가한 6조8654억원이며, 순이익은 15.7% 늘어난 2382억원을 달성했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유도이미지

삼성증권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60.99% 증가한 3416억원으로 시장 전망치(2793억원)를 크게 웃도는 호실적을 거두었다. 매출은 4조41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2526억원으로 66.44% 늘었다.

이외에도 키움증권(2924억원), 한국투자증권(2621억원), 메리츠증권

(1998억원), NH투자증권(1841억원), KB증권(1406억원), 신한투자증권(1194억원), 하나증권(834억원) 등은 두드러진 순이익 규모를 달성하는 등 모두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증권업계에선 울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2500선, 8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상승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이 크게 늘면서 증권사들이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26조 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1.8% 증가, 202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2월부터 나타난 코스닥시장 중심의 개별종목 장세가 코스피시장으로 이어지면서 브로커리지 수익이 큰 폭 개선됐다"며 "거래대금뿐만 아니라 신용거래용자 및 고객예탁금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브로커리지 지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호실적에도 증권업계의

분위기는 밝지 않다. 최근 발생한 SG 증권발 추가 폭락 사태로 CFD 관련 미수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2분기 실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잔액은 2조7697억원으로, 지난해 말 2조3254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증권사 중 교보증권이 6131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하나증권(3400억원) 순이었다.

신용평가사들은 CFD 미수채권 물량이 대규모 발생하면 향후 증권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FD 사태로 인해 증권사 고객 이탈 및 실적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당장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중장기적 채무상환 능력에 중대 변화가 나타날 경우 신용등급이나 등급전망 역시 변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희 나이스인평 책임연구원은 "이번 사태로 증권사가 직면하는 직접적인 위험은 CFD 관련 고객채권 미회수로 인한 실적 저하 가능성"이라며 "사업구조상 투자자가 손실 정산을 회피함에 따른 미수채권 회수 리스크는 국내 증권사가 부담하게 된다. 정확한 손실 금액은 고객 회수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증권사의 대손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도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희연 신한증권 연구원은 "CFD발 손실 우려를 근거로 업권 전반적인 투자심리 악화가 불가피하다"면서 "미수채권 발생에 따른 충당금 적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CFD 신규 가입 중단, 제도 개선 등으로 향후 손익 위축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서울 집값 낙폭 둔화... 용산 11개월만에 반등

아파트값 하락폭 5주 연속 줄어 강남3구 등 규제지역 일제 상승

서울의 선호 지역 아파트값이 속속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매매가격 하락폭이 5주 연속 둔화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시중의 급매물이 상당수 소진되면서 매매수급지수는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05%)보다 0.01%포인트(p) 축소되면서 5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 노원구(0.02%→0.05%)가 중계·하계동 중저가나 구축 단지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지난주 포함이었던 용산구(0.00%→0.01%)는 이촌동 대단지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 전환했다. 용산구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작년 6월 둘째 주(0.01%) 이후 11개월 만이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17%→-0.16%)가 화곡·염창동, 구로구(-0.15%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 41.4%가 거래 금액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시스

→-0.13%)는 개봉·구로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지난주 포함이었던 동작구(0.00%→0.02%)는 주요 단지 위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된 이후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상승 전환했다.

동남권의 경우 지난주 하락 전환했던 송파구(-0.01%→0.08%)와 강동구(-0.01%→0.02%)는 다시 상승 전환했다. 강남구(0.03%→0.01%)와 서초구(0.02%→0.02%)는 주요 단지의 저가 매물 소진 이후 매매가격이 오르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신규 입주 예정 물량 및 매물 적체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 중이다"라면서도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주요 단지 중심으로 문의가 증가했고 급매물 소진 후 매물 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하락폭이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매매수급지수는 10주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8일 기준)는 77.3으로 전주(76.2)보다 1.1p 상승하며 지난 3월 넷째 주(70.6) 이후 계속 회복하는 모양새다.

지역별로는 도심권(종로·용산·중구)과 노원·도봉·강북 등이 속한 동북권이 82.6으로 가장 높았다.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과 구로·영등포·관악이 속한 서남권은 각각 75.8, 73.2를 기록했다. 서북권(마포·은평·서대문)의 경우 72.6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어 집값 반등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대환기자 kdh@



'안양 평촌 초원2단지 대림아파트' 리모델링 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

## 현대ENG, 평촌 초원2 대림 리모델링 수주

사업비 총 4687억 규모

현대엔지니어링이 안양 평촌 초원2단지 대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총 4687억원 규모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8-2 일대 대림아파트를 리모델링해 기존 12개동, 1035세대(지하1층~지상25층)를 13개동, 1113세대(지하3층~지상26층)로 탈바꿈한다. 별동 증축 및 수평 증축을 통해 신축되는 78세대는 일반분양할 예

정이다.

주차 면적도 대거 확보한다. 기존 829대(세대당 0.8대)만 주차 가능했던 주차장은 1692대(세대당 1.5대)까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으로 확대돼 입주민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1기 신도시인 평촌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선정된 첫 사업"이라며 "우수한 사업 조건 등을 바탕으로 입주민 모두가 현대엔지니어링이 선보이는 주거환경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 셋째 주 서울 등 전국 4곳서 977가구 공급

### 분양 캘린더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 등 청약

5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977가구(일반분양 73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 경기 성남시 금광동 '중앙하이츠금광프리미엄', 인천 미추홀구 송의동 '미추홀

루브르송의'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건본주택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산에코델타시티디에트르더퍼스트', 충남 아산시 모종동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 등 3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서 신사1구역주택재건축을 통해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8층, 6개동, 총 424가구 중 전용면적 59~84㎡ 23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6호선 새절역 역

세권이다. 새절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 있는 경전철 서부선과 새절역~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은평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트릴러 역세권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 아산모종2지구 B1블록에서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109㎡, 총 1060가구 규모다. 단지는 아산모종2지구는 아산시 일대의 원도심과 접하고 있어 상업시설과 교육, 문화, 행정 등의 주거 인프라를 공유한다. /김대환 기자

## SRI채권 상장 수수료 면제 2년 연장

한국거래소, ESG 투자 활성화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수수료 면제 기간이 2025년 6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사회책임투자채권(SRI채권)의 발행과 상장을 촉진하고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2025년 6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2020년 6월 15일부터 올해 6월 14일까지 3년간 사

회책임투자채권의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2년간 더 연장됐다.

이러한 수수료 면제 정책을 통해 사회책임투자채권을 상장하는 기업 약 200여개사는 총 20억 원 가량의 상장비용을 경감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조치로 사회책임투자채권을 상장하는 기업이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과 상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하은기자 godhe@